

전후 일본의 학교보건교육과 성교육

마쓰모토 미와 (고베대학)

1. 들어가며

본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하 ‘전후’) 일본의 ‘성’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 특히 학교에서의 교육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에 대한 목적 및 목표를 밝힌 이후에 그 사상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래 전후 일본의 성교육에 관한 역사적 연구로는 주로 성매매의 문제를 취급한 연구와 남녀공학화의 영향을 받은 남녀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2가지가 거론된다¹. 이 2가지에게 공통되는 점은 전후 초기부터 고도경제성장기에 걸쳐서 일본 문부성이 중심이 되어 실시한 ‘순결교육’을 분석한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전후 초기의 일본에서 ‘성’에 관한 교육에 대한 역사적연구는 ‘순결교육’ 연구와 거의 동등하게 취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발한 ‘성’에 관한 논의가 존재했었다. 예를 들면, ‘순결교육’ 시책과는 약간 다른 문맥으로 ‘성’에 관한 교육이 학교체육과에서 ‘학교보건교육’의 일부로 전개된 사실이 다시로(田代, 2005)² 및 모테기(茂木, 2014)³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다시로는 순결교육의 내용이 특히 여자에 대해 과학적 지식보다도 성도덕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는 비판을 전제로 하여, 동시기에 학교교육에서 도입이 시도된 ‘성교육’이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모테기는 나나키다(七木田, 2010)⁴에 의해 밝혀진 학교교육에서 ‘보건과’가 성립되어가는 과정을 기반으로 사회교육국과 체육국에 의한 시책은 별개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단, 이러한 연구가 자료로서 취급된 것은 1967년에 문부성이 전후 일본에서의 성교육의 시작이라 자리매김한⁵ ‘成熟期への到達(성숙기로의 도달)’⁶과 그에 관련된 것에 그친다. 또한 다시로는 학교에서의 실천의 기록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1960년대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학교보건교육에서의 성교육에 사회교육국의 순결교육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에는 약간 시기를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학교보건교육에서 성교육이 도입되려던 시기인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전반의 ‘성’에 관한 교육에 대한 담론으로부터 학교보건교육에서 실시된 성교육이 어떠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는가에 대해 밝히고자 하며, 사회교육에서의 순결교육과 학교보건교육에서의 성교육이 어떻게

¹ 田代美江子「敗戦後日本における「純潔教育」克服の課題：未だなされていない性教育への転換（特集「性教育」の同時代史）」『同時代史研究』同時代史学会（2018）／斉藤光「純潔教育委員会の起源とGHQ」『セクシュアリティの戦後史（変容する親密圏/公共圏8）』京都大学学術出版会（2014）／小山静子「純潔教育の登場 - 男女共学と男女交際」『セクシュアリティの戦後史（変容する親密圏/公共圏8）』京都大学学術出版会（2014）

² 田代美江子「敗戦後日本における性教育の展開とその実態：学校教育における保健教育との関係で」『教育学研究室紀要 教育とジェンダー』研究(6)（2005）など。

³ 茂木輝順「性教育の歴史を尋ねる 戦後・純潔教育編 第14回 学校保健教育改革における性教育・純潔教育（その1）」『現代性教育ジャーナル No. 37』(2014)／茂木輝順「性教育の歴史を尋ねる 戦後・純潔教育編 第14回 学校保健教育改革における性教育・純潔教育（その2）」『現代性教育ジャーナル No. 38』(2014)

⁴ 七木田文彦『健康教育教科「保健科」成立の政策形成 均質的健康空間の生成』学術出版（2010）

⁵ 『社会教育における純潔教育の概況』文部省社会教育局（1967）

⁶ 「成熟期への到達」「中等学校保健計画実施要領」昭和24年度 文部省（1949）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본연구에서 다룬 자료로는 전후 학교보건교육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이와하라 히라쿠에 의한 『学校における純潔教育の理論と実際(학교에서의 순결교육의 이론과 실제)』(第一出版社 1951年)를 쓸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하라에 대해서는 학교보건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의 태반이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한 연구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후 학교보건교육에서의 성교육에 대해 순결교육과의 관계 및 목적을 밝히기 위하여 개인의 담론만을 검토하기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나키다(2010)가 지적했듯이, 이와하라가 역지로 학교보건교육에서 성교육의 도입을 시도했다는 사실 및 당시 학교보건교육에 대해 ‘성’과 관련된 교육에 적극적으로 언급한 인물이 그다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하라가 아마도 학교보건교육에서 최초로 ‘순결교육’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다는 사실 등의 이유로부터 본연구는 전술한 문헌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연구는 사회교육에서 순결교육이 성과학 영역에 있어서 남자·남성을 대상으로 삼은 사실을 지적한 ‘戦後初期の男子・男性向け純潔教育の意義と背景(전후 초기의 남자·남성향 순결교육의 의의와 배경)’(차세대인문사회연구 제15호, 한일차세대학술포럼 2019년)을 기반으로 한 박사논문 중 일부이다.

2. 이와하라 히라쿠의 ‘성’에 관한 담론

2.1 이와하라 히라쿠에 대해서

이와하라 히라쿠는 전전부터 문부성 학교위생국에 소속돼 있었으며, 전후에도 문부성 학교위생관 및 학교교육국체육과장, 국립체육연구소소장 등을 역임한 체육생리학자다. 전후 체육개혁에 ‘위생’교육을 ‘보건체육’의 일부로 자리매김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었다. 또한 보건체육에 처음으로 성교육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성숙기로의 도달’의 편집위원회의 중심적인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1951년에 이와하라는 개인의 저서로 『学校における純潔教育の理論と実際(학교에서의 순결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출판하게 된다⁷. 1951년에 그는 개인 저서로서 본서의 서장에 ‘문부성에 구성된 순결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여 우선 “순결교육기본요강”을 발표해, 더불어 “성교육의 부여법”을 출판하는 등 크게 활동하고 있다. (중략) 이러한 일들은 원래 사회교육 가운데 하나로 실시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교육의 지도를 위해서는 약간 핀트가 벗어난 점이 있다는 사실은 유감스럽다’라며 순결교육위원회를 평가했다.

그리고 ‘문부성으로부터 별도로 간행된 중등학교보건계획실시요강 가운데 건강교육의 아래에 “성숙기로의 도달”이라는 한 문구가 있는데, 성교육을 건강교육의 측면으로부터 봐서 그에 대한 지도의 목표 및 지도 내용, 학습활동, 학습결과평가방법 등의 윤곽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교육은 무엇인지,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략적인 요강의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⁸고 언급했다.

이와하라는 문부성 내부에서 동일하게 ‘성’에 관한 교육을 다루는 조직으로 순결교육위원회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내용에 대해 학교보건교육에서 반드시 적절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

⁷ 岩原拓『学校における純潔教育の理論と実際』第一出版株式会社(1951)

⁸ 前掲岩原pp. 序2-3

던 것으로 보인다.

2.2 ‘순결교육’론과 ‘위생교육’론

이와하라는 성교육을 순결교육과 위생교육 2가지로부터 구성된다고 생각했다. 순결교육에 대해 ‘순결교육이라는 말은 예로부터 널리 사용된 말이 아니며, 새로이 쓰이기 시작한 말이라 생각해도 좋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라 말하기’⁹는 어려우나, ‘성적 순결의 의미이며, 성적 오염이 없다는 의미’¹⁰이며, ‘순결교육은 정조교육과 동의어’¹¹라고 정의한다. 그러한 목적은 성욕을 사회악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함이며, 정조를 잃고도 결혼에 이르지 않는 남녀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문장의 주어는 주로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읽힌다는 사실도 더불어 인식해두고자 한다.

성의 위생교육은 다수의 분야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그러한 내용으로는 ‘一、高校の生物の科學に出ている性教育關係事項(하나, 고교 생물의 과학에 나온 성교육 관계사항)’에서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단원8 자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단원9 부모의 형질은 모두 자식에게 전달되는가’, ‘단원12 생물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인생에 응용되는가’라는 3개 단원으로 되어 있다. ‘단원8’에서는 생물의 내용을 다루며 ‘단원9’에서는 유전을 다루고, ‘단원12’에서는 ‘5 의학상의 과제 (一)유전과 결혼 (二)혈족결혼은 좋은가 나쁜가’만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중요시되고 있는 내용은 성과학 및 의학적 견지에서 본 생물로서 우수한 유전 및 그에 관련된 결혼 등인 것으로 보인다.¹²

「二、家庭科に出ている性教育關係事項(둘, 가정과에 나온 성교육 관계사항)」¹³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원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가정과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육아로서 부인위생, 임신, 출산, 포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지도되며, 따라서 여자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꽤나 잘 다뤄지고 있다’¹⁴는 내용인데, 이는 여자를 향한 성교육은 우선 종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읽힌다.

생물과 가정과에서의 성교육과 ‘성숙기로의 도달’을 동시에 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나, 생물에서 남녀 양측을 향한 우수한 유전 및 결혼에 대해 가르치며, 가정과에서는 여자를 향해 육아 및 부인위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되며, 이에 ‘성숙기로의 도달’을 사용하여 ‘청년기의 발달’ 및 ‘남성의 생식계통’, ‘여성의 생식계통’, ‘어떻게 자손을 영속시킬 것인가’, ‘건전한 남녀관계’, ‘불건전한 남녀관계’ 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좋은 지도가 된다.¹⁵

또한, 이와하라는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남녀 양성을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여자만을 대상으로 삼은 항목을 생략하거나, ‘여자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꽤나 잘 다뤄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여자만을 대상으로 삼은 성교육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응을 취할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앞 항목의 순결교육과 동일하게 주어는 남자·남성인 경우가 많다.

⁹ 前掲岩原p. 21

¹⁰ 前掲岩原p. 21

¹¹ 前掲岩原p. 21

¹² 前掲岩原pp. 29-30

¹³ 前掲岩原p. 30

¹⁴ 前掲岩原p. 30

¹⁵ 前掲岩原pp. 30-3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에서는 고등학생을 향한 내용에 더하여 성병에 관한 언급을 많이 볼 수 있다. 성병에 대해 ‘이러한 병은 결국 불결한 성교에 의해서만 전염되며, 올바르게 순수한 성교로는 절대로 그러한 우려는 없다’¹⁶고 했다. 또한 매독에 대해서는 ‘모두 불순한 성교가 이루어지는 화류계에 존재하기에 화류병이라고도 알려져 있다’¹⁷며, 화류계에서의 성교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매독은 ‘그러한 재앙은 자손에게도 미친다’¹⁸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와하라는 대학생을 향한 위생교육에 있어서 결혼 및 자손 그리고 그것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서의 성병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여 순결교육의 실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의 필요함을 특히 나타냈다.

3. 끝으로

학교보건영역에서 보건과에 성교육이 자리매김된 것은 『중등학교보건계획실시요강』 내용 가운데 일부인 ‘성숙기로의 도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외에 학교보건교육에서의 성교육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학교보건교육의 중심적 존재였던 문부성 위생관이었던 이와하라 히라쿠가 1951년에 출판한 『학교에서의 순결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사용하여 학교보건교육에서 성교육의 방향성의 일례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하라는 성교육이 ‘순결교육’과 ‘위생교육’이라는 2개로부터 구성됨을 기반으로 하여, 성교육에 있어서 지향하고자 한 모습이 ‘순결교육’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었고, 이를 지향하기 위한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위생교육’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순결교육’에 의해 지향된 모습은 스스로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태도이며, 그를 위해서 ‘위생교육’에서 결혼과 유전, 성병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이와하라에 의한 학교보건교육에서의 성교육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본서는 기본적으로 남녀 양자가 대상이었으나, 주어는 남자·남성인 경우가 많았다. 여자·여성을 향한 내용은 그 존재가 소개되는데 그쳤고, 구체적인 해설은 별로 없었던 점에서 특히 남자·남성에게 ‘성’의 지식을 부여해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태도를 가르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교육에서의 순결교육과 학교보건교육에서의 성교육은 세세한 차이점은 존재하나, 근본적인 목적의식은 유사하다. 그러나 이는 다시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여자·여성을 향한 성도덕을 강조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는 사실보다도 종래의 여자·여성을 향한 정조교육에 더하여 새로이 남자·남성을 향한 ‘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던 점에서 공통된다고 생각된다.

4. 향후의 과제

본연구에서는 사료로서 이와하라의 저서인 『학교에서의 순결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자세한 부분은 다루었으나, 향후에 더욱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동일한 영역 내에 존재한 담론을 보다 많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보건교육에서의 성교육에 대해 그 성립과정 및 시행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문부성에서의 학교보건교육의 독자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사회교육에서 순결교육에 편향된 전후 ‘성’에 관한 교육에 대해 연구가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될 수 있

¹⁶ 前掲岩原p. 40

¹⁷ 前掲岩原p. 40

¹⁸ 前掲岩原p. 41

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田代美江子「敗戦後日本における「純潔教育」克服の課題：未だなされていない性教育への転換（特集「性教育」の同時代史）」『同時代史研究』同時代史学会（2018）
- 齊藤光「純潔教育委員会の起源とGHQ」『セクシュアリティの戦後史（変容する親密圏/公共圏8）』京都大学学術出版会（2014）
- 小山静子「純潔教育の登場 - 男女共学と男女交際」『セクシュアリティの戦後史（変容する親密圏/公共圏8）』京都大学学術出版会（2014）
- 田代美江子「敗戦後日本における性教育の展開とその実態：学校教育における保健教育との関係で」『教育学研究室紀要 教育とジェンダー』研究(6)（2005）
- 茂木輝順「性教育の歴史を尋ねる 戦後・純潔教育編 第14回 学校保健教育改革における性教育・純潔教育（その1）」『現代性教育ジャーナル No. 37』（2014）
- 茂木輝順「性教育の歴史を尋ねる 戦後・純潔教育編 第14回 学校保健教育改革における性教育・純潔教育（その2）」『現代性教育ジャーナル No. 38』（2014）
- 七本文彦『健康教育教科「保健科」成立の政策形成 均質的健康空間の生成』学術出版（2010）
- 『社会教育における純潔教育の概況』文部省社会教育局（1967）
- 「成熟期への到達」「中等学校保健計画実施要領」昭和24年度 文部省（1949）
- 岩原拓『学校における純潔教育の理論と実際』第一出版株式会社（1951）